

SPC, 동남아 빵 시장 저격... “허영인 회장 글로벌비전 반영”

〈SPC그룹〉

몽골 정부관계자 등 ‘패션5’ 방문
베이커리 기술·노하우 벤치마킹
태국·브루나이·라오스 진출 확대

허진수 사장 “적극적 사업 강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방법 모색”

SPC그룹이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3대 성장축으로 보고 중요성을 강조해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5일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1일 몽골 정부 관계자와 현지 기업가협의회 소속 기업인 10여명이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패션5’를 방문해 베이커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해외 진출 성공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패션5는 SPC그룹이 운영하는 한남동 소재 베이커리 카페다. SPC그룹은 균일한 품질관리와 프랜차이즈 경영 노하우, 국가별로 특화된 현지화 전략 등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해외 진출에 성공한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SPC그룹 플래그십스토어 ‘패션 5’에서 허진수 SPC그룹 사장(왼쪽)이 온 하피즈 가지 조호르 주지사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SPC그룹

최근 몽골은 한국의 편의점·대형마트·외식 프랜차이즈가 대거 진출하면서 K·푸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SPC 측은 “몽골 기업인들과 협력하면 그동안 구축한 중국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이외에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서 5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베트남·싱가포르(직진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조인트벤처)·캄보디아·필리핀

(마스터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진출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태국·브루나이·라오스 3개국 추가 진출을 확정했다.

SPC그룹은 지난달 버자아푸드(Berjaya Food)사와 태국 및 브루나이 내 파리바게뜨 운영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또, 라오스에서도 현지 유력기업인 코라오그룹(KOLA O Group)과 MF계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서구화된 식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 베이커리 시장이 연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40여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해 있다. 파리바게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와 라오스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트렌드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PC그룹은 올해 말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글로벌 할랄(HALAL) 인증 제빵공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은 연면적 1만2900㎡ 규모로 파리바게뜨가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향후 진출 예정인 중동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첫 시운전을 참관하고 시제품의 품질 상태를 체크하는 등 본격 가동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했다.

허진수 사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함께 동남아·중동 시장을 중요한 글로벌 경영 비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글로벌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비맥주, 유망 스타트업과 교류 ‘동반성장’

‘2024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비전바이오캡과 업무협약 체결

오비맥주는 지난 4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2024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행사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매·지속가능경영 부문 김석환 부사장 등 오비맥주 임원진이 참석해 스타트업의 발표를 심사하고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오비맥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서울창업허브와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을 열어왔다. 6회째를 맞는 올해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이란 명칭으로 지난 8월 참가 기업을 모집한 바 있다.

이번 ‘2024 이노베이션 데이’는 데모데이와 스타트업 밋업(Meet-up) 두 개



지난 4일 ‘2024 오비맥주 스타트업 밋업’에서 오비맥주 임직원과 스타트업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작년 우선 선발 기업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2024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지난해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더데이원랩·후시파트너스·비전바이오캡·뉴트리인더스트리 등 4개 업체가 1년간의 시범사업과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우수 스타트업으로는 폐효모를 맥주 양조 등에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발표한 비전바이오캡이 선정됐다. 오비맥주는 비전바이오캡과 지속적인 협업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효모를 맥주 양조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오후에 개최된 스타트업 밋업에서는 올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1차 선정된 스타트업 7개사가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 중 심사점수 상위 업체는 ‘우선 선발’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약 6~9개월간의 PoC(시범사업화) 기간을 거친 후 내년도 데모데이에서 최종 우승을 가리게 된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혈당조절’ GLPro, 매출 4억 달성

출시 5일만에 3100세트 판매

정관장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혈당조절 기능성 제품 ‘GLPro(지엘프로) 코어’와 ‘GLPro 더블컷’이 역대급 판매 속도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관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정관장 가맹점과 직영점 등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 정관장의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의 신제품 ‘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이 첫날부터 695세트 판매를 돌파하고, 불과 5일만에 3100세트 판매에 약 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차례 완판을 기록한 ‘RXGIN CLEAN(알엑스진클린)’보다 약 2.2배 빠른 속도이며, 2012년 출시 후 1조3000억원 매출을 돌파해 정관



GLPro의 ‘GLPro 더블컷’이 대형마트에 비치되어 있다. /KGC인삼공사

장의 메가 브랜드로 성장한 ‘흥삼정 에브리타임’ 초기 매출의 12배를 뛰어넘었다.

KGC인삼공사는 저속노화 트렌드와 같이 일반인들도 평상시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혈당 조절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이 ‘GLPro’의 인기 비결이라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 쓱데이 첫 주말 매출 11% 급증

이마트 한우 100억 판매 111%↑

신세계그룹이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쓱데이 첫 주말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한우는 이마트에서만 100억원 넘게 판매되어 지난해 쓱데이 대비 매출이 111% 증가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에는 이마트 하루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여행 준비는 쓱

데이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행 상품군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우선, 쓱(SSG)닷컴은 여행 상품 특별 할인가 제공을 위해 라이브 방송과 시간대별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7일 저녁 8시에는 ‘그랜드 조선 부산’ 숙박권을 18만 9000원부터 판매하며, 여기어때·야놀자의 국내 숙박 상품, 익스피디아·호텔패스의 해외 숙박 상품을 최대 12%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2025년 10월까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쓱

데이 전용으로 선보인다. 조선회텔앤리조트는 전 호텔에서 객실, 식음, 리테일 상품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조선 제주, 그레비티는 연박 특전, 클럽 이용, 해피아워 등 추가 혜택을 포함한 객실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쓱데이를 맞아 제주항공과 제휴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스타필드 고양의 ‘쓱데이빌리지’에서는 항공권 및 제주항공과 산리오 캐릭터가 협업한 인형 굿즈 제공 이벤트가 열린다. 아울러 제주항공의 ‘쓱삭 세일’로 최대 5만원 할인된 국제선 항공권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내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

롯데마트가 식료품 쇼핑 대축제 ‘뽕큐절’ 2단계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뽕큐절’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롯데쇼핑 창사 45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의 의미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다.

‘뽕큐절’ 2단계는 앞서 롯데마트가 지난주 선보인 ‘뽕큐절’ 1단계와 동일하게 단 하루만 초특가 판매하는 ‘뽕큐 하루 특가’와 주말 간 주요 먹거리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뽕큐 주말 특가’로 구성됐다. 행사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뽕큐 하루 특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모든 점포에서 날짜별로 진행된다. 7일에는 파프리카, ‘산더미 대파 소

불고기(800g)’를 50% 할인해 판매하고 8일에는 ‘흰다리 새우(100g)’, ‘씨제이 햇반 유기농 쌀밥(210g×12입)’을 가격가에 제공한다. 9일에는 ‘양파(1.5kg)’, ‘퐁퐁’ 등을 60% 할인한다.

주말 고객 대상으로는 ‘미국산 초이스 척아이를(100g)’, ‘서울 멸균 흰우유(200mL×24)’, ‘국민맥주라거편(500mL)’, ‘캐나다산 삼겹살·목심(100g)’ 등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6000원대 치킨과 40% 할인된 초밥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7일부터 10일까지 ‘한통 가야아득 치킨’은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6495원에 판매하며 ‘ALL NEW 새우초밥’은 13일까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40% 할인한 1만1994원에 내놓는다.

/안재선 기자